



IT로 이루는 꿈의 세상, 당신이 주인공

07

인터넷 정보접근 향상의 꿈,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이어가

08

21세기 IT 혁명은 꿈속에도 존재한다

10

꿈꾸는 지만이 꿈을 이룬다

12

신년호 특집에서는 IT로 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네 개의 향한 날개를 활짝 편 비행기처럼  
네 개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2005년  
희망찬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자.



## IT로 이루는 꿈의 세상, 당신이 주인공

IT 반란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를 다른 말로 '꿈을 실현하는 시대'라고도 한다. IT기술은 그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4년 최고의 화제였던 '유비쿼터스'가 바로 이에 속한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제록스사의 펠로 알토 리서치 센터의 마크 와이저 박사가 창안한 개념으로, 처음엔 보다 편리한 컴퓨터를 지칭하는 단어에 불과했었다. 그러던 것이 현재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 모든 사람(사물)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그 꿈같은 세상에 그저 감탄사를 남발하기 전에 꿈을 이루기 위한 IT의 흔적들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이뤄가는 꿈을 설계해야 한다.

### 꿈을 이뤄가는 단계

유비쿼터스 세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단순히 '도래했다', 혹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유비쿼터스란 어느 한 시점에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IT의 발전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계획이 있듯, 유비쿼터스 세상 또한 기반구축기와 확산기, 성장기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로 나아가기 위한 IT기술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이 바로 기반구축기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확산기,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IT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상용화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 올 것이다. 현재 휴대폰 화상대화, 네비게이션 등 마치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고 있는 것들 속에도 유비쿼터스는 존재한다. 하지만 확산기에 등장하는 IT기술은 기반구축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언론이나 공상과학에서 접한 최첨단 과학이 이 시기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장기이다. 꿈처럼 여겨지던 일들이 실현되고 나면 그것은 곧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다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성장해 나갈 것이다.

### 꿈을 설계하는 사람들

이처럼 꿈을 이루는, IT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 '유비쿼터스'는 한 순간의 획기적인 기술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IT 관련 기업들의 단계별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IT와 나는 상관없으니 관련 종사자들이나 열심히 해서 빨리 꿈같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간단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e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위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이라면 이미 IT가 자신의 삶에 한 부분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꿈을 설계한다는 것, 유비쿼터스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IT기술을 활용하고 확산해가면 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각각의 IT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표현해 주는 언어가 필요하다. 즉, IT에 있어서 자국어인터넷주소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편리함을, 국가적으로는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으로는 자국어인터넷주소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설계하는 사람들. 유비쿼터스를 이뤄가는 사람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다. IT로 이루는 꿈의 세계, 아젠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꿈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활약해야 할 때이다. ■